

광주·전남 기온 10년마다 0.1도 올랐다

1912년~2020년 109년간 기후 변화 보니

폭염 5.4일·열대야 18일 늘고 한파 0.3일 줄어
30년 간 여름 20일 길어지고 겨울 22일 짧아져
무등산 백마능선 산철쭉, 예년보다 5일 빨리 개화
복수초 1월말 '활짝'·북방산 개구리 45일 이른 산란

■ 목포의 109년간 열대야일수 변화

연도	일수
1912~1920년	2.9
1921~1930년	5.4
1931~1940년	4.1
1941~1949년	6.4
1954~1960년	8.3
1961~1970년	14.6
1971~1980년	11.1
1981~1990년	5.2
1991~2000년	10.4
2001~2010년	11.2
2010~2020년	20.9

100년 간 광주·전남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10년마다 기온이 0.1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열대야 등 극한기후 현상은 뚜렷해지고 강수의 강도는 강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따뜻해진 기후는 광주·전남지역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꽃의 개화시기와 파충류의 산란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뜻해진 전남, 평균기온 10년마다 0.1도씩 상승=기상청은 지난달 30일 109년 간 관측자료를 보유한 목포·서울·인천·대구·강릉·부산 등 6개 지점의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지역 109년 간의 연 평균기온은 13.6도로 10년마다 0.1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이 시작된 과거 10년 '1912~1920년'의 연평균 기온이 13.1도로 가장 낮았으며, '1991~2000년'의 평균 기온이 14.1도로 가장 높았다.

계절별로는 10년마다 각각 봄 0.15도, 여름 0.07

도, 가을 0.07도, 겨울 0.09도씩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봄과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0년'(1991~2020년)과 '과거 30년'(1912~1940)의 연 평균기온을 비교해본 결과 최근 30년 평균 기온이 0.8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 시작일과 계절별 일수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30년'에는 1년 중 98일이었던 여름일수가 '최근 30년'에는 118일까지 길어져 20일이 늘었고, 겨울은 109일에서 87일로 22일 짧아졌다.

세계 평균과 비교해 10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0.8도 오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6.5ppm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온난화·도시화가 전 지구의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폭염·열대야 등 극한 기후현상 뚜렷=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열대야, 집중 호우 등 목포지역의 극한기후 현상도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9년간 목포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9.2일로 10년마다 1.21일씩 늘어났으며, 폭염일수는 6.1일로 10년마다 0.05일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10년' 2.9일에 불과했던 열대야일수는 '최근 10년' 20.9일로 무려 18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파일수와 결빙일수는 10년마다 각각 0.02일, 0.28일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우일수는 10년마다 0.02일씩 증가했고 강수강도는 0.22일씩 증가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극심한 더

위 현상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극한 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 건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기후 변화로 이른 개화·산란 등 생태계도 변화=기후변화는 광주·전남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무등산 백마능선 산철쭉은 지난해보다 다섯 달 빨리 개화했고, 올 초 예년에 견줄 때쯤 날씨 속에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무등산 복수초가 1월 말, 변산비림꽃이 2월 초 피기도 했다.

벚꽃의 경우 올해 관측 이래 가장 빨리 꽃망울을 터트렸다. 지난 3월 18일 광주에서 벚꽃이 개화하면서 193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1981~2010)과 비교하면 15일 빠른 것으로, 벚꽃 이외에도 매화와 진달래가 각각 평년보다 19일, 9일 일찍 개화했다.

이밖에도 절기상 '경칩'과 '입하'의 과거 기온을 보이는 시기가 각각 13일과 8일 앞당겨져 봄과 여름이 빨라진 것과 일치했다.

이 때문에 섬진강 두꺼비와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시기도 앞당겨져 북방산 개구리의 경우 올해 예년보다 45일이나 일찍 산란한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분석자료를 통해 과거 한 세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진행된 2021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아 지난 2012년부터 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이와 함께 시행된 '보육역량강화지원사업'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돼 기업들의 사업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남대 창업보육센터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2020에서 '스킬(Skul: The Hero Slayer)'을 개발해 인디게임상을 수상하면서 급성장 중인 '사우스포제임즈'를 비롯해 암치료용 박테리아 플랫폼 기술 개발로 6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룬 '썬앤유', 그리고 총 2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해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썬앤바이러스' 등 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남대 창업보육센터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기술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2021년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서 지역 최다인 11명이 선정됐으며, 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시행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에서도 특구 소재 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지역 거점 창업전문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민정준 산학협력단장은 "올해 신설된 창업지원 본부와 함께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며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자들이 전국 동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영산강유역환경청-5개 기관 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일 생태계교란 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전남·제주 지역거점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는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아쿠아플라넷 여수·제주지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무분별한 불법유통과 방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제주지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센터 운영과 퇴치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동물원·수족관의 전시업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교란 생물 교육·홍보 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고 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약기관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통해 우리지역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동구 음식점 정보 한눈에...DB 구축한다

'미향(味郷)의 도시' 광주 동구의 모든 음식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2021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진행한다. 동구는 연말까지 광주 맛집 여행 인기에 부응하고 광주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동구 음식점 정보 및 이미지 DB 구축' 사업을 스마트관광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DB에는 동구 지역의 모든 음식점의 세부 정보, 소비재평가 및 식당 이미지, 메뉴 이미지 등 기

초정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메뉴 정보도 담긴다. 특히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반려동물 출입 여부, 오래된 가게 등 세세한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동구는 이번 사업에 기초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가공 등을 수행할 청년인턴 30여 명을 투입해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력 20여 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사업 수행 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해 관광기업 및 음식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존중과 감사의 손편지 쓰기 전남교육청, 이달 학생 대상

전남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존중과 감사의 손편지 쓰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을 고려, 5월 한 달 동안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중과 감사의 손편지 쓰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교과 시간 등을 활

용해 '감사의 손편지 쓰기' '조부모, 부모 생일에 손편지 쓰기' 등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도 교육청은 컴퓨터 자판과 휴대전화 문자에 익숙한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부모와 조부모에게 보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손편지에 소중한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함에 따라 교우간, 가족간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관계부재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조부모, 부모와 이웃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손편지 쓰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단풍미인쇼핑몰 가정의 달, Thank you 오픈10주년 기획전

행사기간 21.4.28 ~ 5.31 행사품목 한우 등 120여개 상품

이벤트 1

가정의달 할인전 및 파격특가 이벤트 (5. 11 ~ 12)

이벤트 2

신규회원가입고객 5천포인트 지급
구매회원대상 매주10명추첨 2만포인트 지급(50명)

이벤트 3

기간중 구매고객 대상 고객만족도 설문 (설문조사 URL문자전송)
설문응답고객 소정의 기념품 증정

063-532-4345 / 063-535-4345

본 이벤트는 가정의달 및 오픈 10주년 기획전 행사기간에 한합니다. 택배물량 증가와 주문폭주로 인해 택배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